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307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1. 6. 25(금) 14:00~18:15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 회의실
- 출석위원 : 박종관 위원장
 유은선 위원
 이시백 위원
 이원재 위원
 이진희 위원
 장인주 위원
 전고필 위원
 정유란 위원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홍태림 위원

1. 성 원 보 고

박종관 위원장 : 제307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제298차 전체회의로 기억하는데요. 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에 위원님 모두를 예술가의 집에 모시고 전체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의실에는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과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직원만 참석하였습니다. 나머지 직원은 각자의 공간에서 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와 같이 사무처 직원들은 영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307차 위원회 전체회의 참관은 10명의 사무처직원이 하고 있으며 절반 정도가 안전 관련 직원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와서 보고를 하고 회의가 끝나면 퇴실하는 형식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 미리 알려드리고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위원 12인 중에서 박경주 위원님이 불참하고 11인의 위원님이 참석해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예, 지금 상임감사님께서도 회의에 함께 하고 계시고 노동조합에서도 참석을 하고 있죠. 지금 들으신 대로 위원 12인 중에서 11인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개와 보고안건 10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전차(前次) 위원회 결과는 회의자료 4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304차 전체회의에서는 6건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4건이 원안의결, 2건이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05차와 306차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각각 2개의 안건이 모두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전차(前次) 회의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전

차(前次) 회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오늘 의결사항은 예술인력 비대면 교육콘텐츠개발 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 계획(안)을 비롯한 4건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르고 공공예술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 민간공연활성화지원 추가공모 계획(안),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 -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첫 번째 의결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예술인력 비대면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본 의결안건을 위해서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이 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승 부장은 보고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사전의견서에 대하여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예, 안전번호 제889호 2021년 비대면 예술인력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 페이지입니다.

일반적인 예술지원사업과는 성격이 조금 달라서 추진배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2013년부터 고용기금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으로 ‘아르고챗프아카데미’라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온라인교육과 집체교육으로 예술행정, 기획, 경영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고용기금을 받아 수행하다보니 고용기금 정책에 따라서 2017년부터는 신규과정 개발비 지원이 중단되었었고요. 예술인력교육 대상을 고용보험 대상자로 한정하면서 많은 예술인력들의 교육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 사업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안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2021년에 문예진흥기금 사업으로 신규추진을 하기로 했고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기 위한 경비로 신청을 했는데 부득이 예산심의과정에서 6억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비대면 예술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연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저희가 지원사업을 유형화 하여 오늘 공모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업목적은 예술인력(기획, 경영, 행정분야)의 직무, 경력 단계별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신규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이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수요 확산에 맞춘 비대면 교육콘텐츠 개발 및 신규 문화예술교육 통합 플랫폼 내 콘텐츠 활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개요에서 사업명은 보고를 드린 바와 같고 신청대상은 문화예술교

육 수행 실적이 있는 기업, 사회적 기업, 산학 협력단 등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6억 원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5)번의 사업 세부내용 및 지원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중에 연구 작업을 통해서, 뒤의 17페이지와 18페이지의 NCS기반의 로드맵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 로드맵에 맞춰서 사업유형을 총 4개로 구분하여 공모계획을 세웠고요. 첫 번째 유형은 STEP1 예비인력입니다. 문화예술분야 진입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한 실무역량 교육으로 직업기초과정 그리고 문화예술 기초소양과정에 대해서 최소 5개 과정, 과정별 최소 8차시 제작을 첫 번째 유형으로 최대 1억 원의 지원금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문화예술분야 재직자 경력 8년 이내 대상의 실무역량 교육으로 문화예술 공통직무과정 그리고 특화실무과정으로 최소 10개 과정, 과정별 최소 8차시로 최대 2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문화예술분야 재직자 경력 15년 이내 대상의 실무역량 교육으로 공통직무과정 그리고 특화실무과정으로 최소 10개 과정, 과정별 최소 8차시 제작을 조건으로 최대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은 재직자 경력 15년 이상 대상의 실무역량 교육으로 최고위과정, 특화실무과정으로 최소 5개 과정, 과정별 최소 8차시로 최대 1억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유형별 예시는 뒤의 로드맵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은 특이사항이 없어서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이번 사업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하여 교육을 설계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민간경상보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만큼 그 결과물을 플랫폼에 활용하기 위해서 결과물 제출에 제작콘텐츠 전체를 예술위 통합예술교육 플랫폼에 공개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민간경상보조의 후원 사업이지만 저희 플랫폼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기간을 결과물 제출 이후 최소 2년 이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최종 산출물에 대해 비상업적 활용을 전제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지원심의는 총 3차에 걸쳐서 예정하고 있고 지원접수결과에 따라서 2차와 3차는 통합심의를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심의위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지원심의기준은 사업계획의 이해도 및 타당성 40%, 사업수행의 체계성과 전문성 40%,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성 20%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은 7월 중 지원신청 접수를 받아 심의를 한 후에 7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받을 계획입니다.

13페이지부터는 공고문 등 사업의 세부내용이라 자료로 같음하고 위원님들이 주신 안전 별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님께서 이미 개발된 온라인 과정의 재활용 가능성 여부 및 새롭게 개발되는 콘텐츠의 차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개발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위원회가 고용기금과 협의 및 법률자문에 따라서 재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아까 고용기금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2017년 이후 신규과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콘텐츠입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고 향후에 차츰 업그레이드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새롭게 개발되는 콘텐츠와 기존 콘텐츠의 차별성은 말씀드린 대로 기존 과정은 고용기금 방침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술계 현장과는 괴리된 부분이 있

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드맵을 설계하면서 예술계 현장의 의견을 모두 들었고 NCS 기반으로 신규 진입인력들도 예측 가능한 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차별성이 확보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단계의 레벨 설명에서 재직자와 예비인력이 혼선되어 있었는데요. 자료 작성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단계별로 자료는 수정해서 다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의견서로 준비하지 못한 내용이나 추가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고필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CS 기반 교육과정 단계별 분류체계에서 문화기획과 관련해서 영역들이 표준화된 모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좋고 짜임새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실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역사회의 인문지리적인 이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것이 가능하면 추가 첨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축제들은 어디가 잘 나간다고 하면 ctrl+c, ctrl+v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등을 살려내고 그 안에서 결합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거의 없는 게 지금 현재 지역의 축제나 다른 행사들의 한계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화부나 문화재청의 공급시스템도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는데요. 우리 예술위원회에서 교육을 했을 때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관찰되어야 하는가가 이 안에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예,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심의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총 5인 이상을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예, 문화예술교육분야 및 뉴미디어영상콘텐츠분야의 전문가로 심의위원 풀에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면서 분야, 연령, 성,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으시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 절차로 들어갈까 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의사를 표해 주십시오. 반대가 없으시면 전원 찬성을 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가 없이 전원 찬성을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두 번째 의결안건은 2021년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

다. 본 의결안건은 황진수 시각예술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진수 시각예술부장 :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890호입니다. 2021년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20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원결정건수는 27건이며, 신청건수는 224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타 사업 지원 신청서를 낸 행정결격 1건을 제외한 223건에 대해서 심의가 있었어요. 1차 서류심사에서 14건이 관리활용형과 연구지원형이 결정되었으며, 2차 심의대상인 14건, 4건으로 하여 18건 중에서 자율실행형이 11건, 주제발전형이 2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7건으로 신청 대비 12% 정도 지원결정금액 약 24억 300만 원 정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별도공모로 위원회에서 계획을 의결해 주셨고요. 지난 4월 23일까지 지원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전담심의위원을 구성하였고 1차 서류심사가 지난 6월 8일, 2차 PT심사가 6월 18일에 있었습니다. 작년도는 150건 정도의 신청이 있었는데 올해는 74건이 증가한 224건이 신청해 주셨고요. 심의위원 구성 절차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각, 다원예술, 문화일반의 위원 3인이 추천해 주시고 사무처도 추천해서 5인의 위원 중에 4배수 추천, 그 중에 중복추천 1인을 제외한 19인을 후보군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실 입회하에 무작위추첨방식으로 섭외순서를 정했고요. 섭외를 통해서 심의위원 5인을 구성하였고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과 방식, 전수검토 등을 진행했고 5월 26일 전담심의위원을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그 심의위원명단 5인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1차 서류심사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관리활용형 4건에 2억 원이 결정되었고, 연구지원형 10건에 약 1억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간발표를 6월 10일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였고 2차 대상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에 자율실행형과 주제발전형 발표 심의가 1개 사업 당 20분 내외로 있었고 논의를 거쳐 온라인채점을 해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24페이지부터는 결정에 관련한 내용이고 오늘 의결이 되면 6월 말에 발표를 하고 7월 중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붙임자료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혹시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죠.

황진수 시각예술부장 : 서면질의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내용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경우 질의를 해 주시고 토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고요. 기타 의견을 개진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 : 의견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준비도 많이 하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민을 말씀 드리자면 이 공모사업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기관하고 민간이 다 같이 들어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물론 그것이 자율경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담아보고 우리가 국가예술정책이나 지원기관으로서 협력관계 등을 생각했을 때 트랙을 다르게 설계하고 아르코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축적할 수 있는 정책적 흐름 안에서 기획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조건이 명확하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후에 진행되는 것을 보시면서 연구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진수 시각예술부장 : 예, 저희가 2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고민하는 지점이 있었고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차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진수 시각예술부장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은 지역최소보장제를 도입했는데요. 결과적으로 27건의 선정대상 중에 11건이 지역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약 41% 정도가 선정되었습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지금 이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공재단에 대한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2차 총평을 보면 공공재단은 해당지역에서의 공공예술에 대한 담론 형성과 역할을 기대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러한 사안은 논의할 주제로 보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사무처장 직무대행이 지적해서 짚어준 대로 관리활동형인 경우에는 단체, 재단이 신청하는 영역인데요. 이 안에 있지 않고 다른 영역에도, 특히 재단에서 민간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향후 제도를 운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획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 근본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내어서 내년 사업에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 지원선정률이 너무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한다고 하는 아르코비전2030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예술의 사회적 확대를 구체적으로 담보하는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여기에 계신 7기 위원님들의 성과이기도 한데요. 그것에 비해서 지원선정률이 너무 낮아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요. 물론 2개년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만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있어서 사업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것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업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태여 오늘 회의에서 열거하지 않더라도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거나 예산작업과 정부와의 접촉면을 넓혀서 이런 사업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논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두 번째 의결안건인 2021년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찬성을 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 없이 전원 찬성을 하셨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세 번째 의결안건은 2021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추가공모 계획(안)입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이 안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시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제출해 주신 사전의견서가 있다면 먼저 소개를 하고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2021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추가공모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이미 본예산이 22억 4,800만 원으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이미 한번 전체 교부가 된 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4월 19일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추가로 50억 원 증액된 내용에 대한 공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구성은 크게 보시면 2가지입니다. 민간소공연장지원 사업과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으로 나뉘어 있고요. 민간소공연장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10억 원으로 정액지원의 형태로 1,000만 원 곱하기 100개소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회 차에 진행되었던 선정사업의 경우 코로나19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반영해서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심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인데요. 약 1,265개 사업의 대관료를 지불하는 단체에 대해서 2회 정도 공모를 통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약 37억 6,800만 원 정도로 2회 차로 나뉘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관료 실비에 따라서 약 90%까지 단체 당 연간 최대 3,000만 원을 상회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추진현황은 이미 한번 보고를 드렸던 바인데요. 다만 이 사업들은 공공영역의 타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광역문화재단 그리고 민간전문수행기관인 '사람과문화건축사무소' 등 사업체들과 함께 협력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유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긴급하게 지원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으로 추진되었던 실적들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민간소공연장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10억 원의 공모 예산을 전체 소진하였고요. 지원신청 건은 234건 가운데 100건이 결정되어서 이미 지출되었고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11억 3,600만 원 전액 지원결정이 되어서 약 433건에 달하는 대관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추가공모 계획(안)입니다.

민간소공연장지원 사업은 2차 공모가 되겠고요. 공모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15일간 진행될 예정이고 지원대상은 2021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각종 기획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진행될 기획 공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분야는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이 모두 포함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신청자격은 대관료지원사업과는 다르게 객석 수 300석 미만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소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심의방식은 1회 차에 진행되었던 방식을 조금 개선하였는데요. 1회 차에서는 17개 광역문화재단에 있는 공연예술분야의 담당 간부로 심의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해당 심의위원들이 느끼는 심적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지역에 대한 선정사업들을 본인들이 감내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이번에는 분야별 전문가까지 포함하여 심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은 모두 다 지원신청서에 대한 전수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고 광역문화재단 담당지역 지원신청서에 대한 평가가 50% 정도로 진행되어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 가중치를 평점, 고득점 순으로 지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6쪽의 (나)항목인데요.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은 총 2회로 나누어서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차 공모는 8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15일간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3차 공모는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공모가 분기로 나눠서 진행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1차 공모가 지난 연도부터 3월까지 진행된 공연에 대해서 대관료를 지원하였고요. 2차 공모는 금년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대관료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3차 공모는 8월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될 공연에 대한 대관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유형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지원대상 기간 중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진행되거나 종료한 공연. 두 번째는 지원대상 기간 중에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진행 및 시작을 예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이 취소되거나 기 지급한 대관료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들이 미환불된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원신청자격은 기초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 및 예술인 모두 해당이 되고요. 지원내용은 순수한 대관료와 부대시설사용료에 한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총 37억 6,800만 원 정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 당 최대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민간공연장과 국공립공연장 대관료의 전체 지원예산을 각각 7대 3 정도로 안배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1차 때도 이미 보고를 드렸지만 지난해에 이런 대관료가 결국은 각종 국공립공연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유형의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와 3차의 각각 예산의 안배는 17억 원과 20억 원 정도의 규모로 나눠져 있는데요. 공모예산 안배기준(안)은 전년도에 실제로 공연이 진행되었던 통계에 따른 수요예측을 반영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위원회가 대관료지원 사업을 하면서 심의는 행정심사를 통해 적격심사를 판단하는 방식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담당자들이 모든 지원신청 서류에 대한 부분들의 사실유무를 모두 조사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시간이 제법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는 48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쪽을 보시면 지원신청서, 대관계약과 관련된 증빙서류, 유형1과 유형2 신청 시에 필요한 공연취소 확인서 등의 내용들과 기획사가 대관계약 대행 시에 대행계약서에 단체명이 기입된 내용들, 그 다음에 대관료 납부 증빙서류, 공연장 등록증 사본, 통장계좌 사본, 단체 증빙서류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혹시 해당 기간 내에 미제출 되거나 사실관계를 증빙하기 위해서 혹시 누락된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제출 받아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홍승욱 부장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사전의견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홍태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1차 공모 때 발생하였던 내용인 데요. 이번에는 민간전문위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TF나 지원심의운용기준에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심의위원들에게 고지하고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홍태림 위원님 답변이 되셨나요?

홍태림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사전의견서에서 준비하지 못한 내용이나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가 없으시고 전원이 찬성을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마지막 의결안건입니다.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 -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어제 늦게까지 작업이 진행되어 어제 저녁에 최종자료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기획조정부장의 보고를 받으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안건번호 제892호 2021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 -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연예술촉진인 대한민국공연예술제 30억 원이 증액되고 기 변경하여 기재부에 제출했던 통합문화이용권사업 140억 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7월에 정부에서 국회로 보내고 국회에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경일자는 2021년 7월 중으로 예상되고요. 변경내용 중에 수입은 140억 6,000만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복권기금을 추가로 전입 받아서 지자체에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출 부분은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이 30억 원이 증액되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가 140억 원이 증액됩니다. 공연예술제 30억 원은 문예진흥기금 여유자금에서 활용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140억 원은 복권기금 공익사업으로 추진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증액을 위해서 복권기금 추가 전입을 요청하였으며, 문예기금에서는 부담할 수 없다는 설득을 통해 복권기금에서 최종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초·차상위 계층이 대폭 증가한 사유, 242만 명을 예상했는데 265만 명으로 수혜 비율이 계획대비 73%에서 67%로 하락하고 이에 따라서 수요가 초과하기 때문에 복권기금의 여유재원 현황을 고려해서 20만 장을 추가 발급하는 계

확립입니다. (다)항을 보시면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을 추가 배정하여 1억 원씩 기준을 잡더라도 30건의 공연예술제 활동에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타 55쪽부터 있는 부속서류들은 문서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의 보고를 받으셨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문화누리카드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문화복지 우산이 있다면 차상위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최소한의 문화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취지가 문화누리카드의 기본 설계 이유인데요. 모집단이 늘어나니까 전체 70% 정도 대상을 지원하던 것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대상자로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확대하여 지원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2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게 하는 게 핵심 내용이 될 것이고요. 모두발언 시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어려운 공연예술계의 현실을 반영해서 대한민국공연예술제에 추가로 사업비 30억 원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고요. 여기에 따른 의결을 구하는 것이 오늘 의결요청의 기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참고로 작년에는 우리 기금이 465억 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때 국고가 431억 원으로 총 896억 원 정도가 코로나 상황에서 투입이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고를 드렸던 민간공연장활성화 사업에 50억 원이 기금운용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승인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우수콘텐츠지원사업 45억 원으로 2개 사업은 기금으로 변경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공연예술제 30억 원을 치면 125억 원이 문예기금으로 추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통합문화이용권 141억 원은 복권기금으로 투입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를 합치면 266억 원이 추가로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태서 일반회계에서 연수단원지원 사업 336억 원이라든가 온라인미디어활동지원 49억 원으로 현재 약 651억 원 정도가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결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문예진흥기금이 우리 기관인 것이고 우리 기관이 문예진흥기금인 것과 같이 혼재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현장 예술계가 어려울 때는 과감하게 공간을 열어서 현장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나 이런 예산 결정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의지를 실어주시면 그 의지가 현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무처는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심의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전체회의 때만 해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결과를 놓고 굉장히 긴 시간동안 “대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깊었고요.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가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장르의 구분을 벗어나서 위원회가 예술계에 주는 메시지도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을 크게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공연예술계로부터 수많은 성명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가정책과 어떤 정책의 혼돈스러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문화예술위원회의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뼈아픈 지적도 있었구요. 또 여러 가지 예산 당국에 호소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예술의 본질을 열거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다양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빨리 대안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위원회로써는 큰 다행이며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의지를 모아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누리카드와 관련해서도 우리 사무처장직무대행이 설명해 준 바가 있고 저도 설명을 보텐 바가 있으니 원안대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까합니다. 우선 홍태림 위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태림 위원 : 간단한 내용입니다. 30억 원을 증액해서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최대 30건을 추가 선정한다는 의미가 기존 심의리스트가 있고 ‘가’, ‘부’에 대한 리스트가 있을 것인데요. ‘부’로 편성된 것 중에 추가로 30곳을 올린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 공모를 하는 것인가요?

박종관 위원장 : 공모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준비를 해서 의결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소 혼돈스러운 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아마 오늘 논의 내용에도 일부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국회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고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을 받아 공모를 진행하면 절차 부분에 대한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정리된 부분은 공모로 가는 부분으로 확인을 했고, 당초 계획에는 부족한 예산 부분도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들어갔지만 이 부분은 협의과정에서 안 됐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본부장님이 지적하신 내용까지가 논의사항인 것 같은데요. 논의를 해서 “새롭게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우선 사무처가 준비를 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절차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하시겠어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국회에서는 지금 추경이라고 해서 어쨌든 7월 중순이나 말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만, 지금 벌써 하반기가 시작되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지체 없이’. ‘지체 없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급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이미 절반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현장예술계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최대한 벌어주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본부장 : 추경 일정은 기재부에서도 이번 주에 모두 대기를 하고 있고 사무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추경도 빠른 처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도 이 예산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모계획(안) 등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이렇게 4개의 의결안건을 모두 소화했습니다. 보고안건 중에는 국회지정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직접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의 정리 등을 해야 할 형편이라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10분에 다시 속개를 할까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03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 고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오늘 위원회에는 10개의 보고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는 보고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보고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지정교부사업 2건의 보고 등 총 10건의 보고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2021년 문화예술후원협력네트워크지원 사업지원심의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심의 및 발표 등 일정으로 인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본 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주요사항을 사전에 보고하고 의결은 다음 서면회의 개최를 통해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본 보고 이후 서면회의 예정일자는 7월 첫째 주가 될 예정으로 있으며, 추후 사무처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사전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답변을 드리고 보고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지정교부사업 2건에 대해서는 국제교류부장이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공연예술부장이 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정회시간에 복도를 지나가는데 국회지정사업 인천아시아아트쇼 보고

를 위해 담당자께서 복도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어 회의장에 들어오십사 안내 하였습니다. 현재 회의에 참석해 계시는데 소개를 받을까 합니다. 두 분이 오셨는데 앉아서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미애 인천아시아아트쇼 예술감독 :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아시아아트쇼2021'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한미애입니다.

유현석 인천아시아아트쇼 사무국장 : 사무국장을 담당하고 있는 유현석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먼 길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국제교류부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먼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일단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붙임으로 있는 교부신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고요. 올해 처음 지원이 되는 행사이므로 개요 정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검토의견은 여기에 오신 분들께도 이미 공유를 드렸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인천아시아아트쇼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하는 행사이고 문예진흥기금 1억 원이 투입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매칭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시비로 1억 원이 보조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5억 원입니다. 인천지역의 미술문화 저변확대 및 문화향수기회 제공하며, 예술가들에게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작가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작가와 작품을 전시하고 경매를 진행할 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억 원은 대관료라든지 각종 홍보물 제작비 등 직접경비 중심으로 편성하도록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교부신청서 안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고요. 최대한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을 하도록 교부단계라든지 정산관리까지 차질 없고 투명하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사전검토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술감독님께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2월 달에 국회지정사업 관리방침에 대해서 의결을 했을 때 저희가 사업별로 모니터링 평가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의결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으로 간단히 답변을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홍태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부터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애 인천아시아아트쇼 예술감독 : 두 번째 내용은 “특정 협회들 차원에 그치지 않느냐?” 이번 인천아시아아트쇼는, 사실 ‘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아트페어도 아니고 비엔날레도 아닌, 그러니까 볼거리와 팔거리를 모두 수용해 줄 수 있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쇼에서는 화랑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화랑 그리고 단체, 작가들, 개인까지 폭넓게 기회를 제공하는 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그동안 했던 것과, 이번 아트쇼에는 특별부스가 있는데요. 총 210개의 부스에서 특별부스 10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트페어 등의 행사를 진행할 때 메이저급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이 첫 번째 행사이기 때문에 볼거리를 유입하기 위해서요. 이 작품들은 사실 컬렉터한테 저희가 요청해서 이것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이것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세션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200개는 단체나 개인이나 화랑들이 전체적으로

부스를 가지고 들어오는 작품들입니다. 차별화 되는 것은 해외 작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국제심사위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5개국의 심사위원들이 선정되어 심사를 거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직접 들여서 진행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아티스트 사례비 등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쇼이기 때문에 볼거리도 제공하지만 판매 거리도 있어야 합니다. 작가들이 직접 가져와서 열심히 제작한 작품들을 판매하여 자기 작업을 하는데 있어 지속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외 아티스트 사례비 등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질의사항으로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에 대한 고려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전시활동 근처에 작품을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술감독님께서는 덧붙이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한미애 인천아시아아트쇼 예술감독 : 예.

박종관 위원장 : 국제교류부장은 더 보탬 내용은 없습니까?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예,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우선 먼저 서면으로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 답변이 되셨나요? 혹시 추가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림 위원 : 작품 대여비나 참여 작가의 사례비 항목이 예산에서 안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여쭙보는 건데요.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성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미술장터 아트페어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아트페어들과 큰 변별점이 있는 행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지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이야기 중에 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품들과 참여 작가 사례비에 대해서 여쭙봤던 것은, 예를 들어 부스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대 성격의 부스도 있다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대여비나 초대비 등이 그런 부스에는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예산상에는 그런 내역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냥 무료로 대여가 되고 작품이 오게 되는 상황인가요? 특별전 부스 같은 경우는요.

한미애 인천아시아아트쇼 예술감독 : 특별 초대전 부스는 컬렉터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후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 차원에서 컬렉터가 가지고 있는 중요 작가들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많은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태림 위원 : 후원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한미애 인천아시아아트쇼 예술감독 : 예.

홍태림 위원 : 제가 의견서에는 드리지 못한 내용인데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도록 제작비에 자기부담금이나 수입금 없이 보조금 3,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출품 요강을 보니까 도록비와 심사비를 포함해서 130만 원을 따로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조금 3,000만 원 외에 도록비로 사용하는 비용이 따로 있으신가요?

유현석 인천아시아아트쇼 사무국장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와 시비 2억 원 외에 자기부담금이 3억 원에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충당 가능하나 하면, 저희가 210개의 부스에서 초청 식으로 10개 부스는 빅 작가들에게 부스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나머지 200개 부스에 대해서는 참가비 130만 원씩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충당이 가능하고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나 기타 인천지역의 기업체들한테 협찬 등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태림 위원 : 그러니까 130만 원이 자기부담금 3억 원에 사용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유현석 인천아시아아트쇼 사무국장 : 예, 자기부담금은 참가비와 기업들의 협찬 그리고 후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태림 위원 : 도록에도 사용이 되고요?

유현석 인천아시아아트쇼 사무국장 : 예. 보조금 항목에서 인천시 보조금과 문화예술위원회 기금하고 어떻게 사용될지는 드린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제가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부스판매비 2억 6,000만 원이 있는 것이고요. 기업체의 협찬과 후원 등 별도로 수입이 있는 것이네요.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대로면 그렇지 않습니까? 130만 원씩 200개를 판매한다면요.

유현석 인천아시아아트쇼 사무국장 : 예, 지금 상태로는 별도의 후원금은 없지만 인천시의 기업들과 저희가 지속적으로 1월부터 사업취지를 설명하고요.

박종관 위원장 : 국장님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데요. 저희가 뭘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금해서 여쭙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을 듣고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부스 판매비가 200개에 130만 원이면 2억 6,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기업체 협찬이 있다고 했으니까 추가 수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 것인지에 묻은 겁니다.

한미애 인천아시아아트쇼 예술감독 : 예, 맞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시백 위원 : 협력기관을 보니 예총과 한국미술협회도 함께 하는데요. 민예총과 민미협은 그쪽에서 어렵다고 한 것인가요? 아니면 섭외 자체를 안 하신 건가요?

한미애 인천아시아아트쇼 예술감독 : 섭외는 다 했고요. 지금 여기에 자료로 올라와 있는 것은 결정된 것만 일단 올라왔습니다. 지금 협의 중이고요. 관련된 작가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논의된 것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넘어간다면, 물론 정산 때 모두 반영되겠습니다만 수입부분에 대한 정확한 계수를 갖춰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 공적자금을 쓰는 대부분의 행사들이 모두 그런 것인데요. 이른바 진입장벽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쇼’라고 하는 행사로 미술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 진입장벽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로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2가지 이야기가 질의응답으로 나온 것 같고요. 추가 의견이 있으면 듣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의 예술을 지탱하는 아주 근본적인 부양 장치였고 그 귀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몇 백만 원의 지원금을 얻기 위해서 예술가 혹은 예술단체가 며칠씩 지원신청서를 쓰고 심의를 받고 그를 통해서 지원금이 결정되고 그렇게 되면 정산을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지정되어 큰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단체로서도 귀중한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답일 수 있을 겁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편으로는 돕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평가도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함께 개선책을 찾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내어주시길 것을 위원회를 대표하여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시고 이 자리가 결코 쉽지는 않았을 텐데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한미애 예술감독님과 유현석 국장님이 오셨는데 혹시 못하고 가시는 말씀이 있으면 안 될 테니까 못한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애 인천아시아아트쇼 예술감독 :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유현석 인천아시아아트쇼 사무국장 :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 수용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창작오페라 허황후 사업계획 보고를 연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남 김해에

서 오신 것이죠? 오신 분 소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오 김해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서종오라고 합니다.

신선섭 예술감독 : 저는 허황후 예술감독을 맡은 신선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감독님과 팀장님을 환영합니다. 먼저 홍승욱 공연예술부장으로부터 사업의 소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2021년도 국회지정사업 창작오페라 ‘허황후’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2월에 1차년도 전체 총사업비 5억 가운데 예술위원회로부터 4억 5,000만 원, 시비 약 5,000만 원을 통해 허황후 오페라를 제작했던 사업이고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작과정이나 실제 공연들이 지연이 되다가 올해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3회 창작오페라 허황후의 초연이 진행 완료된 사업입니다. 2021년도 총 사업예산은 4억 5,000만 원이고요. 그 가운데 저희 문예기금이 3억 그리고 도비와 시비가 약 1억 5,000만 원 배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야사 복원이라는 국가적 사업 안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문화예술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관기관은 들으신 바와 같이 (재)김해문화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 사무처에서 교부신청서나 지정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들을 꼭 검토했습니다. 올해 전체 사업의 내용들은 창작오페라가 제작되는 과정이라서 문예위가 문예기금으로 추진하는 해당 목적사업에는 크게 위배되는 바가 없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집행 적정성에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전체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티켓수입이 없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사업설명을 하실 때 조금 부가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전년도 사업들도 이미 목적인바 대로 공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수정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진행하면 이 사업이 추진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사업내용을 서종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아까 홍태립 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올해 허황후가 공연을 조금 더 보완해서 진행되는 공연들이 대구오페라하우스와 강동아트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홍태립 위원님께서는 배리어프리 환경들을 통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공연들이 되었으면 한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서종오 팀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서중오 김해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 먼저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가야사 복원과 관련해서 김해에서는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에 있는 김해 예술인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도전했지만 현재 여러 민간에서 진행했던 작업들이 기록이라든지 많은 내용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직접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의지를 비쳤고 작년에 그 사업을 저희 재단이 맡으면서 오페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제작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작가, 작곡가의 공모와 제작방향 등을 설정하는 부분들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연기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오페라 허황후를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총 3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총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5억 4,200여 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전체 참여인력은 실연자를 포함해서 총 19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부분들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영남권 그리고 김해에 있는 예술인들을 오디션 그리고 캐스팅을 통해서 88%가 참여를 했고요. 관람인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띄워 앉기로 인해서 3회 동안 총 1,528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21년 사업을 준비하면서 올해 9월에 진행이 되는 제 19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 초청을 받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 10월에 서울 강동아트센터에서 진행하는 2021 서울오페라페스티벌에도 초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4월 10일 저희가 공연을 종료하고 관람객 약 300여 명과 모니터링 그리고 지역에 계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수정·보완 작업을 위한 회의를 4월 23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출연진이나 참여하는 실연자 부분의 큰 변경은 없는데요. 내용 부분에 있어서 각색, 편곡을 진행하기로 했고 연출, 지휘자가 일부 교체되는 형식으로 해서 작품을 대구와 서울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7월에 편곡 작업이 완료되면 계약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8월부터는 연습을 시행하고 9월에 대구오페라축제에 참가하고 10월에는 서울오페라페스티벌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11월에 정산을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올해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는 4억 5,000만 원 중에 주조연, 합창, 참여하는 실연자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인력 사례비가 총 3억 3,000여 만 원으로 실제 4억 5,000만 원 대비 약 75% 예산이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에게 배정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홍태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박종관 위원장 : 배리어프리 문제는 한꺼번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혹시 신선섭 예술감독님께서도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선섭 예술감독 : 저는 팬참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홍태림 위원님이 질의한 배리어프리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게 있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중오 김해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 예, 제가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연자나 참여자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관람의 환경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박종관 위원장 : 관람입니다.

서중오 김해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 예,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4월 김해문화의전당도 마찬가지로 대구오페라하우스, 강동아트센터가 전문 공공공연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대비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고요. 폭을 조금 넓히면 청각장애나 시각장애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로는, 혹시 관람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해소를 할 수는 없겠지만 개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실제로 이 공연이 자막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중오 김해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 예, 그렇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자막을 사용할 때 지문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면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접근하면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의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거나 특별한 공연 1회 정도를 배리어프리 형태로 운영하는 배려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공공성의 확장이 있을 것 같다는 의미로 흥태팀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순전히 기획적 결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서중오 김해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 예, 지금 이야기 해 주신 부분들을 제작팀과 회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페라라는 것이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실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오페라는 음악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곡자나 편곡하시는 분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2020년도 공연을 보게 되면 그때도 7월에 작곡자를 선정해서 계획대로 하면 12월에 들어가셨는데요. 타임라인으로 보면 4개월 정도밖에 작곡 기간이 없는 것인데요.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2시간 넘게 하는 공연을 4개월 만에 작곡했다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였거든요. 사실 그 작곡가는 굉장히 우수한 작곡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은 “조금만 더 시간을 줬으면 완성도가 더 높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제가 그날 가서 본 느낌은 대본이 조금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021년 계획을 보시면, 아마 모니터링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대폭적인 각색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올해도 타임라인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7월에 시작해서 8월에 연습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각색과 편곡이 한 달 만에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제가 표를 잘못 봤는지? 7월에 회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미 각색은 돼서 그 다음에 편곡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중오 김해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23일, 그러니까 공연이 끝나고 나서 2주 안에 저희가 작가와 전체적인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나온 의견으로는 각색 방향에 있어서 연출적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수정되면 일정부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개연성 등이 해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집중되었고요. 편곡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작곡가가 상당히 촉박한 시간에 진행을 했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여러 번 비추었습니다. 단, 사업기간 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편곡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을 때 나왔던 부분들이라서 이미 작가와 작곡가가 모여서 두 차례 정도 각색 방향과 편곡에 대한 방향을 협의했고요. 총 공연시간을 15분 정도 줄이면서 연출방향이나 각색 부분들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가와 작곡가는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진행하는 상황이고요. 이미 작업이 들어간 상황이라서 두 분에게는 “충분한 시간이다.”라는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연보다는 작품이 완성도 있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열 위원 : 예, 감사합니다.

박중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전고필 위원 : 지금 더블캐스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역의 브랜드 공연으로 상설화를 위한 예비 작업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으로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서중오 김해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 보통 오페라공연을, 국내 같은 경우에는 1개 공연을 같은 배우가 원캐스팅으로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캐스팅을 2개로 나눈 것이고요. 초연 때 캐스팅을 거의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연 때 오디션을 통해서 9명을 선발했고요. 그 다음에 각 배역에 따라서 적합한 부분의 캐스팅을 병행해서 오디션 캐스팅을 통해서 20명을 뽑았기 때문에 작품의 완성도나 작품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더블캐스팅으로 진행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오페라가 규모가 있으니까 상설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고필 위원 :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입니다. 지원금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공연을 올릴 수가 있는데 지원금이 끝나고 나서 김해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온전하게 받을 것인데요. 이미 캐스팅된 사람들이 공연이 만료되고 각자 활동하고 있는 부산이나 서울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가야사가 전라도 남원이라든지 순천까지 가야의 힘이 발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쪽에서 가야를 이해하고 싶어서 김해문화재단을 초청했는데 갑작스럽게 “와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공연이 끝났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여쭙보는 것입니다.

서중오 김해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 지금 저희가 추가로 협의가 들어오면 캐스팅이 되었던 배우들의 일정을 확인해서 맞춰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연장에서 공연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일정부분들이 협의되면 출연하신 분들이 거기에 가서 공연하는 부분들은 현재까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는 두 번의 공연을 진행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내년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루트로 공연투어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연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공연할 수 있는 부분들의 대책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고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정리를 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주로 창작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대한 제안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창작오페라라고 하는 작업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고유기능이 창작을 고취하고 고양한다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 면으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창작오페라 사업들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하는 것과 맞물리면서 전국적이면서 동시에 지역적인 소재로 많은 창작오페라 작업으로 이어졌죠. 예를 들면 오페라 직지, 단종의 눈물, 어사 박문수, 중원의 눈물, 해녀, 순이삼촌, 유관순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역의 대표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나라 차원에서 주목해 볼만한 소재들을 가지고 창작오페라를 만드는 귀중한 작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먼저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은 창작오페라의 창제작을 고취한다고 하는 목적에서의 귀중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는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창작을 부양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장치였습니다.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요. 예술가 혹은 예술단체들이 몇 백 만원 단위의 지원금을 얻기 위해서 며칠씩 지원신청서를 쓰고 지원신청서를 쓴 것을 가지고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 여건에 맞춰서 정산하는 어려운 과정을 함께 거치는 것인데요. 김해문화재단이 ‘허황후’라는 작업들을 함에 있어서 문예진흥기금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중요한 지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사업을 양질로 이끌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혹시 신선섭 예술감독님께서 말씀이 없으셨는데요.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선섭 예술감독 : 예, 문화예술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작오페라가 거의 1회성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저희는 가야사를 최대한 발전시키고 가야문화를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전국체전까지 이 공연을 준비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 기회를 절대 허투루 놓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마찬가지로 목적으로 저희는 공연을 도울 것이고요. 또한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고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겁니다. 우선 먼 길을 와 주셨고 이 자리가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찾아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 것은 좋은 사업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넘어서는 우리나라 음악 역량을 총체적으로 동원하여 좋은 사업으로 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먼 길 오셨는데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로 사업내용을 보고 받을까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종오 김해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 감사합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2개 사업 모두 보고를 받으셨고요. 적정성 여부는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안건은 의결 사항은 아니고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2개의 사업을 보고 받은 후에 우리끼리 논의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정종열 위원님께서 먼 길을 가셔서 이 작품을 보셨어요. 보시고 오셔서 이해도가 매우 높습니다. 수도권에서 김해는 굉장히 멀고 공연이 늦게 끝나서 1박을 해야 하는 일정으로 다녀오셨다 들었습니다. 직접 관람을 하셨으니 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정종열 위원 : 창작오페라는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내려가서 봤고요. 사실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아까 계실 때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약간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글을 쓰고 싶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 같은 것을 쓰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작곡가와 성악가 주연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오랜만에 인사를 했더니 이후 그 친구들이 일부러 저를 보러 서울로 왔어요. 같이 장시간 얘기를 하며 오페라와 관련된 부분들을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우려를 했는데 생각보다 모니터링을 단계별로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묻지는 않았습니. 희망이 보이는 것은 서울과 대구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사실 대구오페라축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재미있는 오페라를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서 이 오페라를 거기에서 공연함으로써 그들도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있거든요. 강동아트센터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그것보다 대구가 그런 점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각색하는 것도 기대가 되고요.

박종관 위원장 :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국회지정사업 2개 사업계획을 보고 받으셨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고필 위원 : 제 생각은 2가지인데요. 하나는 아트쇼 같은 경우에는 6,500만 원의 대관료를 굳이 투여해야 하나? 인천에서 만든 아트스페이스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도 굉장히 훌륭한 공간들인데요. 물론 대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자기 자원을 활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도 한번 드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구요. 두 번째로는 아까 오페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외부에서 캐스팅 된 분들이 끝나고 나면 지역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김해문화재단에서 투여한 돈은 사실 5,000만 원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준 비용, 그리고 경상남도가 투여한 자원에 비해서 김해문화재단이 공적자금을 투여한 액수가 너무 적다고 보여지는 것은 현 정부가 있을 때 ‘쇼’를 하고 끝나버릴 수 있는 소

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 차원에서 말씀을 해서 동등한 자원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문제 제기 잘 받았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2개의 보고를 받았고요. 8개의 보고안건이 남아 있는데 모두 직접 보고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건논의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 사무처장직무대행이 이야기한대로 후원협력네트워크지원 사업과 심의위원 후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나요? 일단 후원협력네트워크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는 다소 어려운 안건으로 보인다고 하여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의결은 7월 첫 주에 하자는 것이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꼭 보고를 받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원심의 결과 보고는 보고를 안 받을 방법이 없어서 사안을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예술후원협력네트워크지원 사업 지원심의계획(안)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위원장님, 이 심의 안건을 하기 전에 긴급한 요청이 와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문체부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요. 방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재부에서 복권기금 140억 원을 추경 이후에 별도 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예기금에서 140억 원을 선반영하고 후속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 간의 약속이라는 게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겁니까? 사소한 표현, 정말 속된 표현을 쓰자면 보증수표인 겁니까?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문체부 문화정책과가 기재부의 확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진행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도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니까 우선 기금 재원을 먼저 투입하고 나중에 복권기금으로 이 부분을 복구해 주겠다고 하는 기관 간의 약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수정(안)을 준비시키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사무처에서는 수정안을 준비해주세요. 본

안건을 수정의결하시고 일단 남은 보고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센터장은 어디에 계세요?

후원센터장 : 나주 대회의실에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해 주세요.

후원센터장 : 예, 2021 문화예술후원협력네트워크지원 사업 지원심의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문화예술 후원 문화조성을 위한 매개 조직의 다양한 활동지원을 통해 후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지역 문화재단 및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원입니다. 지원신청 접수결과입니다. 지원신청은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15일간 접수를 받았고 접수결과 문화일반 단일 분야로 신청 14건, 결격 3건, 지원신청액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결격사유는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결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심의는 6월 28일 월요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 구성입니다. 문화일반 분야 총 5인을 섭외하였고 그중 4인은 심의위원 풀에서 무작위 추첨 방법과 전화섭외 순위에 의해서 4인을 섭외하였고 1인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7조 제4항 제3호에 의거하여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후원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비수도권 20%, 여성 40%, 신진 40%를 고려하여 표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심의방법은 사전 전수검토제 운영 및 서류심의 온라인 채점 진행과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기준입니다. 계획의 실현 가능성 40%, 사업수행역량 30%, 사업 확장성 30%입니다. 심의평가 방법은 채점제 운영으로 심의위원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채점이 됩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위원회 전체회의 보고 및 서면의결 추진 후 7월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짧게라도 질의가 있으시면 물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일단 보고를 받으시고 의결 전에 의견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고를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다음 보고안건은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 기본계획(안)인데요. 지원총괄부의 사안인데 이종국 부장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지금 나주에 계신가요?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아닙니다. 대학로예술극장 지하 사무실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예, 위원회 보고안건 자료 96페이지와 97페이지를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심의위원 후보단 기본계획은 지난 주 위원 간담회 때 말씀드린 2022년 공모사업 지원 심의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첫 번째 논의가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와 97페이지를 보시면 2019년부터 2년 동안 약 1,500명의 지원심의 전문가 풀을 확보했고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최종 의결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 DB에 말씀드린 1,500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이 분들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풀의 구성에 대해 홍태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지나치게 특정 연령층에 쏠려 있다.” 2030 인력에 대한 신청도 없었고 신청을 하자니 10년이 안 된다는 기준으로 여태까지 승인이 안 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희 위원님께서 성평등TF를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도덕적 기준과 관련해서 성폭력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관련된 인사의 제재 활동 중지 기간이 2년으로 올해 만료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입장을 정리해야 할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98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에 자율신청으로 자원으로 올리는 방식으로는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심의 때마다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요. “전문성에 대해서 담보가 어렵다.” 99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올해 특히 전담심의위원제로 대부분의 부서에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후보단에 포함되지 않은 절반 이상의 인력들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인증뿐만 아니라 실제 전문가 후보단으로 들어와서 지속적인 심의참여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문화예술 기관의 심의위원 관리 실태를 보니 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게 가장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극단적으로 “예술위원회에서 모든 광역재단과 시의 심사위원들을 아예 지정해서 내려줘야 한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재단 역시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풀을 확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태림 위원님께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실제 사례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연극 분야 전문심의위원 후보단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성추행 관련 이슈가 불거졌고 결국 2년의 법정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2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희는 ‘정지’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지? 말씀드린 대로 블랙리스트 실행 당시 공공기관장으로 재직했던 인사들이 2019년도에 이슈가 제기 되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정지를 하자는 것이 올해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부터는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공식적으로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원 풀과 관련해서는 7월과 8월에 각 사업부서와 공모사업 개선을 논의하면서 실제 저희가 다원예술에서도 실험하고 있는 각종 심사위원의 자격방식 그리고 심사위원 위촉 방식에 대해서 같이 개선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의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열 위원 :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하실 거지만 음악분야의 심의위원을 제가 보면 전체 140명 정도가 되지만 사실상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세부 분야라는 것이 어떤 분야는 심의를 넣기에 책정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작곡 분야나 특정 평론 분야

가 필요한데 그 분야는 굉장히 포선이 낮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풀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세부 분야별로 넓히는 것도 고안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천 형태를 번거롭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서울문화재단처럼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뽑는 방식도 고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 예전부터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란을 찾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찾을 때마다 헛갈리기는 하는데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요. 만약 기간이 되면 팝업창을 띄우든지 해서 용이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원총괄부장의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홈페이지 메뉴 개편 문제는 즉시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하면 바뀌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자천 외에 협회 등을 통해서 일괄해서 추천을 받는 것은 어떠한 제안이 있었어요. 그것은 조금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세부 장르별로 현황은 106페이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을 먼저 참조해 주시고요. 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각종 협회나 해당 장르의 주요 기관들에서 추천을 받는 것은 2019년에 이 제도를 처음 지원하면서 실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100여 명이 위촉이 되었던 것이고요. 2020년도에는 자천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는데요. 보시면 실제 신청대비 선정률이 50% 정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께서도 막상 심의위원단을 추천하실 때 “우리 후보군에서 너무 없다.” 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결을 같이 하는데요. 작곡이나 편곡 쪽을 할 때 “자체의 풀이 너무 작다.” 그래서 이것은 무작정 그냥 늘린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22년도 공모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것에 가장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심사위원들을 전략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게 지금 현재도 전담심의회위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요청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향들을 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3월 기준으로 더 이상 자천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잠정 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련된 요청사항은 이 방향이 결정되고 나서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종열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유은선 위원 : 자천과 타천을 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지금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타천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정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자천 제도에 타천을 같이 얻을 수 있느냐고 질의한 것인데요.

유은선 위원 : 협회나 기관의 추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들끼리 그 장르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자천을 예술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박종관 위원장 : 다만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심의를 하러 나오셔야 하는데 본인이 어쨌든 동의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타진을 하더라도요. “내가 심의위원이 되는 줄도 몰랐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정종열 위원 : 서울문화재단의 예를 들면, 어떤 협회에서 추천을 한다고 하면 그냥 협회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동의가 된 상태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상 본인 추천이라는 것이 쪽스러운 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 대신 추천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는 형태도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전담심의위원 같은 경우에도 인력 풀이 없는 경우에 심의위원이 되게 되면 그 분은 우리 심의위원 인력 풀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제도 보완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원재 위원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전담심의위원은 어쨌든 위원들이나 사무처에서 공을 들여서 섭외하고 추천을 하신 분들이니까 저희 추천 풀에 들어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풀 제도의 핵심은 풀에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배제도 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인데요. 제가 장르는 잘 모르겠고요. 문화일반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저는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풀 안에 지역에 좋은 분들이 없을 리가 없고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도권 중심이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번에 풀을 보완하실 때 아까 단체 얘기를 해 주신 것처럼 지역단체나 지역문화재단들한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저희 예술위 풀에 지역의 좋은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 분들을 풀에 포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이것도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뿐만 아니라 심의위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회의시간이 아니라도 평상시에 많은 의견을 얘기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홍태림 위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태림 위원 : 지금 보고 받은 내용 중에 저희가 정돈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02쪽에 보면 심의위원 후보단 활동 제한에 대한 조치 기준 마련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3항, 4항, 5항과 관련해서는 블랙리스트 관련한 활동 제한을 설정한 내용이고 2020년 1월 31일에 위원회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31일에 끝나고요. 이것을 방금 부장님께서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 블랙리스트TF에서 7월에 이행협치추진단과 간담회를 하게 되니까 그때 의견을 구한 다음에 그 의견까지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연장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좋습니다.

홍태림 위원 : 그리고 100페이지 상단에 심의위원 후보단 활동정지 기준 마련 관련해서도

○씨가 3심 최종 무죄 확정이 돼서 2021년 2월에 무죄 확정이 된 상태인데요. 심의위원 풀에 다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4개월 간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것은 이진희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지요?

이진희 위원 : 예, 일단 99페이지 확인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확인서에서 후보군에 지원하는 사람의 윤리의식에 기반해서 확인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확인서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사가 시행될 수 있다. 이것이 확인서를 작성하는 주요한 이유일 텐데요. 이게 지나치게 현장을 규율하는 위원회의 위치 같은 것들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위원회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같이 확인서에 포함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확인서에서 세 번째 문장인데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시행이 중요합니다.”라는 것보다는 규정 작업 중이고 7월, 8월내에 규정이 만들어진다는 가정을 하고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규정에 의한 조사·시행에 동의합니다.”라고 적시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예비 정지가 적용된 심의위원회 관련한 경우에는 규정 작업 이후에 세척 작업까지 같이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 세척에 의해서 이런 사례가 적용될 수 있게 안을 만들고 소급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저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지 기간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예술위가 판단할 것인지는 이후의 규정과 세척 안에서 반영돼서 소급 적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의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102페이지 심의위원 해촉 사항에서 1번의 사망, 심신장애 또는 해외장기 체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라고 해서 심신장애가 해촉의 사유가 될 수 있게 기재된 문구는 수정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한 상태를 가정하고 만들어진 규정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규정의 내용에서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쟁점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 외에도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7월 간담회로 옮겨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거든요. 지금 대안을 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의위원 후보단 문제는 공정심의를 위한 밑바탕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꾸준히 보완하고 살펴봐야 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정도 문제 제기를 받고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 정리를 해서 7월에 예정되어 있는 간담회 때 추후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원재 위원 : 저는 오늘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하되 급한 부분이 아니면 원래 사업혁신TF가 있었잖아요. 지금 TF가 없더라도 위원님들과 이종국 부장님 팀과 심층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심사 풀 제도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 장치가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뭘 만들지는 않더라도요. 저희가 사업혁신을 하면서 심사제도도 많이 토론을 하셨으니까 다음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에 내부 워크숍처럼요. 그냥 간담회 안

건으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그것을 하고 본회의에 상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심층 논의를 하는 테이블이 있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박중관 위원장 : 예, 전체 사무처가 일을 하는 방식에서 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쟁점을 그냥 위원회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다수가 논의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의견이 걸러지고 그렇게 걸러진 의견이 다시 한 번 본 위원회에 올라와서 또 한 번 보완되는 형식의 의결구조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관해서 지적해 주신 이원재 위원님의 방식대로 한번 사업혁신TF에서도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받으면서 오늘 논의는 이 정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17일에 추가 논의를 하거나 사업혁신TF를 통해서 논의가 한번 정리되도록 사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 후보단 기본계획은 이 정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다음은 체육기금 사업인데요. ‘2021년도 작고문인선양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1년 작고문인선양사업 지원심의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지원부에서 어느 분이 나와 계시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인 테스트를 하고 연결을 속개하도록 하고요. 소위원회 운영 기본계획은 지금 보고가 준비되어 있나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중관 위원장 : 그러면 정창호 정책혁신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2021년 소위원회 운영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대략의 내용은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위원회 운영 개요를 보시면 3개의 상설 소위원회가 있고 3개의 TF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장인주 위원님과 정종열 위원님께서 정 정책혁신 소위원회로 들어오셨고요.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는 이진희 위원장님 외에 정정숙 위원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외부 위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달 위원회쯤 별도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셔야 할 부분이 당초 현장과 정책은 연임이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8월이기 때문에 2022년도 8월까지인데 저희가 규정상 소위원회 및 TF운영기간에 위원회가 과반수이상 바뀌면 1개월 내에 소위원회를 재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조하시고요. 일단 현재 7기 위원님들 임기와 동일하게 2022년도 5월까지를 임기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예산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과 부분은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117페이지 올해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118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소위원회 신입 위원님들의 참여는 구성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는 7월에 별도로 의결을 받을 예정입니다.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위원회 운영 체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인에서 6인으로 인력을 분산시켰고 소위원회 활동 성과와 창출을 위해서 아르코현장대토론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연구를 진행하거나 온라인 공론장을 신설해서 이 내용이 계속적으로 담론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보고를 드렸듯이 감사의 표시로 원고료 지급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 사무처 간의 접점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월간 뉴스레터 ‘소위 브리핑’을 발행해서 소위원회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 사무처 내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125페이지의 붙임 3 자료를 보시면 코로나19대응TF 운영계획(안)이 별도로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내용을 보고 받으시면 코로나TF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위원은 정유란 위원님을 팀장으로 해서 이원재 위원님, 유은선 위원님 그리고 사무처에서는 저희 정책혁신부와 정책연구 쪽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126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2021년 주요활동 방향 및 논의 안건에 대해서는 두 번째 논의 안건에 나와 있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이나 유사재난대응체계 준비, 방역안전 문화예술시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유사 재난상황 시 예술인 고용노동 안전장치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내용은 작년도 코로나TF 보고서 내용이 얼추 정리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와 사회적 메시지의 발신을 위해서 7월 달에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론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버전으로 기초부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들은 내용은 7월 21일이고요. 국회의원회관의 영상회의실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은 민주당의 이병훈 의원님,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님이십니다. 이 정도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때 이 내용에 대해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결론처럼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는 소위원회 보고 시간을 따로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보고 받고 추후에 해당 소위원회 보고 때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잠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정회)

(17시 13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2021년 한국작고문인선양사업 지원심의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 차장님 보고를 해 주십시오.

김무열 문학지원부 차장 :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작고문인선양사업 지원심의 결과보고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추진하다 올해 예술위로 이관되었습니다. 재원은 체육기금이고 전체 사업예산은 2억 원입니다. 올해는 12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 중에 5개를 선정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이육사, 하근찬, 최명희, 천이두 선생님의 문학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사업과 ‘백조’ 창간 100주년 기념 연구보고서 발간 및 심포지엄 사업 등 총 5건이 선정

되었고요.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1곳, 전북 2곳, 경북 2곳 등 이상 5곳이 선정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이게 지원심의니까 위원님들께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마땅히 듣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시백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시백 위원 : 문학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탈락된 분들의 사업도 상당히 괄목할 만하고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고필 위원 : 사업이 참 좋아서 문화부에서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별것은 아닌데요. ○○○ 심의위원이 69년생이고 ○○○ 심의위원이 68년생인데 82년 생으로 되어 있네요. 다른 분이 혹시 나오셨나요?

김무열 문학지원부 차장 : 생년월일이 잘못되었는데 생년에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오차가 있으면 정정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태림 위원 :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에 국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체부 단위에서 하던 사업을 예술위 쪽으로 이관해서 하는 사업이 왕왕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관 요구가 있으면 무조건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어떤 단계까지 논의를 하고 받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김무열 문학지원부 차장 : 이 사업은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직접 작년에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예술정책과에서 사업수행이 여의치 않아 저희 쪽에 위탁 수행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 예술위에서는 이 사업을 받아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태림 위원 : 그러니까 위원회 단계에서 검토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문체부에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사무처 단위 안에서 정돈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인가요?

김무열 문학지원부 차장 : 예, 그렇습니다.

오영주 아르코예술개발인력원장 : 예, 그 당시에 제가 문학시각예술본부장이라서 그때 문화부에서 이 사업을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잘 할 수 있겠다는 의견제시를 해서 문학지원부장도 이 사업은 예술위원회가 적절하겠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저하고 같이 상의를 했을

때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 당시 처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까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싶어서 수탁 결정된 사업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도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결격으로 2개 사업이 있는데 결격은 어떤 것들입니까?

김무열 문학지원부 차장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 결격이 되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지원심의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는 설명이죠?

김무열 문학지원부 차장 : 예, 맞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이시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안타깝게 선정이 안 된 사업들도 모두 지원을 받아도 될 만한 우량한 사업들이네요. 깊이 계획서를 살펴보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작고문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하게 거론될 만한 분들을 기념하는 사업들인데요. 다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넓게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는 듯합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죠. 없으시면 이 정도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여기까지가 주요 의제였고요. 그 다음 보고사항은 소위원회와 TF운영 보고입니다. 15차 정책혁신 소위원회 운영 결과보고, 22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운영 결과보고, 제 13차 성평등에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코로나19대응TF 7차 회의 결과보고 등 4건의 소위원회 및 TF 결과보고인데요. 이 보고는 정책혁신부장이 모아서 필요한 것 중심으로 한꺼번에 보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소위원장님께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혁신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연구과제 3가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현재성 연구와 기후변화와 예술지원정책의 지원방향, 융합기술과 예술정책의 지원방향 등 크게 3가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각각에 대한 진행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히 130페이지를 보시면 기후위기와 예술정책 지원방향과 관련해서 6차례의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한번 보시고 혹시 참여를 원하시면 저희 쪽에 알려주시면 같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현재성 연구도 역시 설문 정도 검토를 했고요. 여러 가지 FGI를 통해서 현재 현장예술인들이 어떤 작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반영할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것은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소통 소위원회는 134페이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회의안건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 지역간담회가 끝나고 지금 현재 지역간담회의 속기록을 정리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이 정리되면 현장소통 소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도 그 결과를 공유해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온라인 공론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공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현장소통 페이스북 운영이나 기타 정책 제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다원예술 동료평가와 관련된 내용도 이야기가 있었고요. 예술제 정산절차 개선이나 기타 중앙과 지역의 매칭사업으로 운영되는 체계에서 저희 쪽에 정책 제안이 온 것이 있는데요. 특히 장수군 꿈꾸는 예술터나 광주시립극단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는 이제 2기 소위원회. 강운주 위원님이 계셨을 때 구성된 위원님들의 마지막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진희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내용은, 이제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2기 활동을 종료하면서 뭔가 입장문이나 우리 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리를 해서 제안을 하는 형태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받아 들여서 145페이지 붙임자료에 대해서는 이진희 위원님께서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있는 코로나19대응TF는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내용과 결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TF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발신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국회의원회관 그리고 예술현장의 다양한 협회나 단체들이 참여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고 정리해서 공론장을 만들자는 게 취지였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내용과 연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누락된 내용이 있거나 추가 보완 설명을 하실 내용이 있으면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장 : 소위원장님들 혹시 추가 보고를 하실 게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죠. 홍태림 현장소통 소위원회 위원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태림 위원 : 정부장님과 강보경 대리님께서 내용을 너무 잘 정리를 해 주셔서 회의자료나 부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내용은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성평등 소위원회도 그렇고 현장소통 소위원회도 같이 맞물려 있는 사안이 있어서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장소통 소위원회 안에 송원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진희 위원님께서 최근에 성평등 소위를 다시 구성하면서 송원 위원님이 성평등 관련 활동가로서 여러 가지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평등 소위원회에 참여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장소통 소위원회와 성평등 소위원회를 송원 위원님이 모두 참여하시는 거라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검토를 해 봤는데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창호 부장님께서서는 외부에서 봤을 때 “1명의 위원이 2개의 소위에 들어가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곳만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해 주신 바가 있거든요. 저도 좀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규정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현장소통 소위는 공모를 통해서 구성이 되었지만 성평등 소위는 위원장 단위에서 위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2곳 중에 1곳만 선택을 할지 아니면 2곳 모두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소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때 말씀을 드리려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못 드렸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쯤 283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사항으로 청년 참여 확대방안 논의의 건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

시에 논의를 더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2021년 소위원회를 재편할 때 재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야기되었던 것을 재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때 이야기되었던 부분과 현장소통 소위원회 청년 위원님들도 아르코에 청년 담론 관련해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시면서 회의를 따로 진행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7월이나 8월 이후에 제가 작년에 이야기 드렸던 제안사항이나 현장소통 소위원회 청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제안입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제가 사전에 검토를 했던 내용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소통 소위원회를 뽑을 때도 신청하신 분들을 공모절차를 통해서 모두 모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보면 현장소통 소위원회도 1기와 2기를 나눠서 연 단위로 해서 가급적 다양한 현장의 참여를 열어주는 통로의 취지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저희 내부 위원님들이 복수로 참여하는 취지와는 다르게 현장에 계신 분 1인이 다수로 참여하시는 것은 다양성 측면에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TF나 소위원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소위원회 기본계획을 보고 드렸듯이 약간 운영상 예산의 문제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원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홍 위원님, 청년 위원을 늘리는 문제는 정원 12인 외에 1인을 더 모시자고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홍태림 위원 : 청년 위원을 늘리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예술위의 의사결정 기구가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인데요. 그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확대 방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원재 위원 : 제 기억이 맞으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태림 위원께서 전체적으로 청년 참여의 중요성을 제기했었고요. 제 기억이 맞으면 청년 관련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때 토론했을 때 그것도 열어놓되 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횡단하는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서 시간을 놓고 논의를 해 보자는 정도까지 논의가 되었고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의견을 드리면 일단 정책혁신 소위원회 관련해서는 특별히 더 드릴 것은 없고 자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진행되는 일들은 정책혁신부에서 많이 지원도 하시고 협력하면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종열 위원님이나 장인주 위원님이 참여를 하셨고 3가지 트랙 말고 위원회 전체적으로 정책 논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조만간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려서 정책 소위에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같이 얘기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은 저도 봤는데 참여비율이 소위까지 전체에서 28% 정도로 30%가 조금 못 되는데요. 다른 가이드라인을 봐서는 낮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충분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현장소통 소위원회의 청년 위원님이나 다른 소위에

도 청년 연령대나 참여하는 분들이 논의의 테이블을 한번 갖고 예술위에서 청년 관련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의견에서 추가로 TF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각 소위마다 청년 위원들이 추가로 소위에 참여하는 게 좋다는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홍태림 위원 : 예, 저도 작년에는 청년 관련된 얘기를 드렸을 때 청년TF나 소위원회 방식을 얘기했으나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방식 외에도 풀어낼 수 있는 담론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략개발팀에서 국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다음 대신 관련해서 청년 담론 관련해서 제안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공론을 모은다든지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희가 심의제도에서는 연령문제나 지역문제, 성문제 등을 안배하려고 많은 애를 쓰는데요. 소위에 따라서는 안배가 잘 안되는 면도 있거든요. 특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장소통 소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고요. 성과 관련해서는 기구, 즉 소위원회로 대응이 되는 것인데요. 연령과 관련한 것에 새로운 TF나 소위원회의 구성 수요가 있는지는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제기하신 문제는 실무 쪽에서 준비를 하셔서 7월 간담회 때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갈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홍태림 위원님이 현장소통 소위원회 관련해서 보고를 하시면서 논의거리가 생겨서 조금 논의를 했고요. 그 외 정책혁신 소위원회라든가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코로나19대응TF에서도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보고 중에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2기가 최종 회의를 마쳤다는 보고를 아까 하신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진희 소위원장님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위원 : 부장님께서 잘 해 주셨는데요. 2기의 임기를 마무리 하면서 활동에서 주력을 하였던 것은, 2기는 “성평등예술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데이터 기반의 자료들을 어떻게 성평등, 다양성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정책을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활동을 종료하면서 입장문을 내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문 등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내용 자체를 위원회에서 손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위에서 어쨌든 제안하는 형식으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내용 중에서 예술위가 단기, 중장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적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용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기 구성과 관련해서는 홍태림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1인이 이종의 멤버십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의견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회의 전에 홍 위원님과 잠깐 얘기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으면 송원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서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나누기는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한 의견을 여쭙야 되겠네요. 소위원회의 이중 멤버십.

물론 위원회의 위원들은 여러 개의 소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보통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현장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 보다 많은 인력 풀을 확보하거나 기회를 준다거나 통로를 연다는 차원에서 구태여 중복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유란 위원 : 송원 위원님이 굉장히 상징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활동하고 여성이고 청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더 도드라지기 때문에 2개 소위원회에서 활동하실 때 그분에게 뭔가 썩워지는 프레임이 좋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저는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소중한 멤버이기 때문에 한 군대를 정해서 활동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고필 위원 : 예, 저도 동의합니다. 괜히 역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한 곳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정숙 위원 : 제 생각에 단기적으로는 그분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고요. 워낙 전문성도 있고 정말 그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열어 두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분에게 오히려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하게 함으로써 과욕인 존재로 외부에 비춰져서 장기적으로는 그분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진희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저희가 틈틈이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이번에는 내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원재 위원 : 저는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은 동의는 하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위원들의 상황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되 실제 일로 보면 지금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그분이 어떤 역할이나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 추정은 새로 구성하는 성평등 소위원회도 위원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혹은 구성의 계획들이 있으니까 한번 상의를 해 보신 다음에 기본방향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시점에서 6개월 정도는 더블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혹은 현장 소위원회에서 빠지고 이쪽으로 오시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하시면..... 바로 빠질 수 있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월 기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소위원장님이 상의를 하셔서 그런 애기의 소통 취지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요.

박종관 위원장 : 우선 본인의 선택도 중요할겁니다.

이진희 위원 : 예, 당연히 소통을 해야 하고요. 지금 이원재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셨는데요. 흥 위원님과 제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무리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협의할 영역 속에 들어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와 관련해서 이 정도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 정책혁신 소위원회나 코로나19대응TF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고필 위원 : 제가 현장소통 소위원회와 관련해서 정리된 것 중에 이슈가 있는데요. 저희와 예술위원회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트랙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장수군의 꿈꾸는 예술터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다른 것은 차치하고 현장소통 소위원회로 문제 제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현장소통 소위원회가 다루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지원사업들이 지역에 내려갔을 때 지역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원을 받고 나면 용병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 용병과 지역의 토착 예술인들이나 예술단체하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은 게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평가틀 안에서 지역의 현장에서 이 부분들을 끌어갈 수 있는 역량들이 있는가? 없다면 외부하고 잘 결합해서 갈 수 있는가를 평가 안에 넣으면 현장에 가서 갈등의 관계가 조장되지 않고 이미 여기에서 필터링이 되지 않을까? 예컨대 다른 사업인 문화도시 사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용병을 고용해서 쓰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동네사람이라도 토사구팽을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지 않도록 예술위원회 사업에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예술인복지재단이나 지역문화진흥원 등도 그렇게 하는데 위원장님께 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부분을 점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관장끼리 협의를 하고 사무처에서 평가 요강 안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 매끄럽고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우선 주신 말씀대로 소통의 통로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신 겁니다. 장수군의 꿈꾸는 예술터의 사례를 얘기하셨습디만, 사업역량이 어디가 더 많냐 적냐? 누가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어떻게 성과를 조직할 것이냐에 대한 모든 부분이 다 녹아 있는 문제를 제기하신 거라서 급하게 우리 내부 논의도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관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니까 다른 기관과의 기관장 네트워크 혹은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를 연결해서 사고해야 할 문제니까 빨리 방법을 찾고 간담회 등 가닥이 잡히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앞에 제 892호 기금변경(안)이 새롭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봐 주셨으면 합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의결사항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건을 처리해 주십시오.

박종관 위원장 : 예, 사안과 관련해서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안건번호 제892호 2021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6차 변경 -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린 내용 중에서 바뀌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3쪽을 보시면 수입에 복권기금전입금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입변경을 했었는데요. 수입 변경이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지출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에서 170억 원이 감액돼서 사업에 충당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이 2차 추가경정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복권기금 전입은 2차 추경안이 확정되는 7월 이후에 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추후 전입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사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다만,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

게 있는데요. 아까 위원회는 892호 안을 의결했거든요. 그런데 의결한 안을 회의가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할 때 다른 의안번호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의결절차를 무시하고 새로 의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과 관련해서 해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일단 이 부분에 대해 규정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닌데요. 지금 회차 내에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안의 변경으로 이 안건번호 그대로 해서 수정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당초 보고하고 의결한 892호 안건을 307차 위원회가 종료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한다는 것이 의결주문의 핵심인 것이죠?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박종관 위원장 : 들으신 바대로 위원님들께 위원장이 의결요청을 드립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논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왕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제출한 수정(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번호 제 892호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6차 변경(안) -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 제출 받으신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반대가 없고 위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셨으므로 수정(안)으로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10개의 보고를 모두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논 의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안건으로 2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공연예술제 현안 및 문제점 진단과 관련해서 송시경 본부장이 직접 보고를 하시나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홍승욱 부장이 대기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의결한 예산 사안과도 맞물려서 조금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수정할 내용을 현안 중심으로 간단하게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대한민국공연예술제 현안 및 문제점 진단에 대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2022년도 정시공모 전까지 계속해서 경과를 갖고 진행되어야 할 사안들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 사무처에서 판단한 내용들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후에 어떤 절차적 방식을 통해서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체 예산 편제에 대한 검토나 조정,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전체 의결도 있었고 사무처 내부에서도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들을 타 사업의 내역사업이나 예산으로 편제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시점은 기재부에서 2022년도에 대한 정부 부처(안)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발레축제와 대한민국오페라축제가 저희 장르대표로 선정되어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 사업은 사실 오페라발레축제 조직위원회가 지금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은 현재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사항이기는 하지만 국고예산의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예산으로 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경우 문예기금 내 국제교류 사업들로 이관을 해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안에 보면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서울아트마켓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국제공연예술제도 교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늘푸른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체육기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이관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어워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문예기금 내에서 창작산실 내에 창작뮤지컬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연관성이나 성과들이 드러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감액되는 추이들은 하도 많이 위원님들께서 들으셔서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공연예술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시·도에서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라든가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별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쉽지는 않으리라 판단은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에서는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가져가면서도 2019년까지 저희가 지역대표로 지원을 했던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지원받고 있는지 저희가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금의 이동현황을 파악하면서 저희가 이후에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있는 세 번째 내용은 이후의 방식이 되겠는데요. 사업 개선을 위한 공청회 등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 일정정도의 사업 개선(안)이 나오면 예고제 형태를 통해서 예술현장이 1~2년 간 유예기간을 갖고 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대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역최소보장제를 이 사업에도 역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업이라는 특성을 반영해서 지역최소보장제 폐지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20% 이상의 사업들은 지역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편적으로 자원배분 하는 4:1:4:1 비율에 대한 방식들을 이 대상사업에서는 제외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의 규모를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들은 이후에 위원님들과 계속해서 상의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방식들로 지금 현재 심의 개선에서 저희가 논의를 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1차, 2차, 3차 정도로 사업자 우선 선정을 하고 예산은 후에 배정하는 방식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가제도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신규 진입하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제에 대한 수요도 반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오래된 사업들을 지원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새로이 예술적 시대성을 반영한 내용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안정적인 지원금 자구책을 마련하는 부분은 장르성, 대표성, 국제교류성 사업들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도 예산개편(안)과 더불어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 구성 및 심의방식에 대한 개선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심의위원 풀 안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또한 직접적인 사업과 관계성 있는 분들을 제외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들을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결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을 선정기준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부담으로 인정하는 부분들이 지역대표공연예술제를 제외한 시·도에서 받고 있는 시비나 도비 같은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연극제 같은 경우나 전국무용제 같은 경우들도 시·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으면 중심 사업들이 거의 자부담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티켓수입이라든가 ‘공연예술제’라는 사업명 말고 축제성 사업으로 아예 사업명을 개편하면서 티켓수입이라든가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157쪽 우측 상단을 보시면 영국 에든버러 같은 경우가 진행되고 있는 페스티벌이 전체 재원 현황입니다. 190억 정도를 갖고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국가로부터 보조 받고 있는 비용들이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비용들은 티켓이라든가 펀드레이징 등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축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신청사업과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간 부합성인데요. 사실 정종열 위원님도 그때 같이 고민을 하였지만 과연 이런 유형의 사업들은 작은 단위 행사와 같은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과연 대한민국공연예술제에 부합하느냐는 것도 정의를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행사와 축제라는 2가지 관점 안에서 다시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제일 마지막에 중장기적으로는 연구용역들을 실시해서 축제나 공연예술 행사에 대한 분류를 하고 이후에 지원 자구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향후 추경 결정시점을 고려해서 7월 2주 차 정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할 때 보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7월 전체회의 때 추경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면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 공모계획(안)을 올리고요. 사전에도 계속 장르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중관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셨고요.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 계속해서 열악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과 대안을 세워야 하는 문제라서 진작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의견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고 받으시고 의견을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7월 간담회 때도 또 한 번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홍승욱 부장이 이야기한 설명보고 대로 지원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것은 지체 없이 진행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상의하고 협의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고려해서서 의견을 먼저 주시고요.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장직무대행이 의견을 추가하겠습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지난번 간담회 때 이종국 지원총괄부장이 얘기했듯이 내년도 정기공모 사업에 대한 일정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오늘 논의에서 심의위원과 관련된 논의 사항도 있어서요. 주로 창작 쪽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하셨듯이, 작년 사업혁신TF 위원님들 중심으로 이런 논의를 집중 토론해서 위원회 간담회나 위원회 의결사항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박중관 위원장 : 다만, 위원회 사업을 예견하고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는 예산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놓고 각종 다양한 대책들을 함께 연구함이 어떨지? 그게 비교적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 같이 상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논의를 하고자 한 내용이니까 논의가 필요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주십시오.

정유란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대한민국공연예술제가 어쨌거나 극적으로 추경과 관련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단계에 오기까지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요. 그 과정 안에서 현장에서의 문제 제기라는 부분이 있었을 때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사인을 보내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여쭙본 바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예산이 감축되는 상황 안에서 확보가 되었다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요. 향후 창작지원 예산의 확대에 대해서 위원회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사인이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술위 차원에서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중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술위 차원의 현장에 주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고요. 다양한 통로를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여러 개의 협회가 모여서 낸 성명서는 관점이 매우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현장의 반응과 의사표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의 활로를 여는데 긍정적인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저희 위원회 예술창작본부와 실제 각 협회 간 네트워크가 함께 동원된 부분들도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현장에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과정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20년 이상 이렇게 지원을 받던 사업들이 갑자기 끊기면 받을 수밖에 없는 망실감에

대해서 마땅히 위원회는 그렇게 된 데 대해서 현장을 위로하거나 유감의 의미를 전하는 절차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신 의견을 받아서 사무처 실무 쪽에서 이런 과정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십시오. 일단 이것은 우리가 단톡방 안에서도 조금 논의한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논의내용을 받기로 하고요. 두 번째 논의사항인 2021년 제1차 (가칭)'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준비회의 개최 결과보고를 받고 논의를 이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정책혁신부장이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죠?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타 안건으로 올라왔던 이유는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관련된 기본계획이 없어서 팀장이나 외부 위원 구성방식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명칭도 확정해야 할 것 같고 주요 내용도 다뤄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타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처음에 모여서 사무처에서도 오영주 원장과 제가 참석했고 행정지원으로 박현일 정책혁신부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구성 관련해서 소감이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눴고요. 아르크혁신TF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를 드리고 지금 현재 직원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TF일정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많은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 공유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160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저희 직원치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사무처 직원들이 어느 정도 상처가 있고 회복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조사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내용들이 모아지면 이후에 같이 논의를 이어나가면서 잘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타 논의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고안건으로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책혁신부장의 보고를 받았고요. 논의해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정숙 위원 : 정 부장님께서 TF에 참석하실 때는 정 위원님이 되시는 건데요.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기본계획이 없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지난 번 회의에서 논의되어 통과가 되었고요. 이것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팀장을 외부에서 모실 수 있다는 열린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도 7월 달에 이행협치단과 간담회를 하게 되니까 그 간담회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장님과도 준비위원장이 상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만 정리가 된다면, 그리고 이행협치단과의 간담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행협치단의 생각과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을 맞춰보고 거기에서 이슈를 몇 가지 골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 간담회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말씀 감사합니다. 7월 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행협치단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고 구체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그 TF에 참여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신 홍태림 위원, 정유란 위원님께서도 혹시 보태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면 정정숙 위원님의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논의사항 2개가 활발한 논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보고 성격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미처 논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차기 간담회나 위원회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정숙 위원 : 이진희 위원님께서 우리 공간과 관련해서 뭔가 의견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진희 위원 : 매번 회의 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까먹었는데요. 오늘 올라온 안건들과는 무관합니다. 제 임기 때 꼭 해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술가의 집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의 장애접근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동식 리프트라도 구비를 해 놓는 게 맞지 않나? 매번 계단으로 올라오면서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박종관 위원장 : 이 건물이 지어진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요. 이것이 근대문화유산이라서 저희 마음대로 못 하나 못 박는 건물이기는 합니다만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너무 없는 건물이 아니냐는 지적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출입 정도를 자연스럽게 하는 시설 외에는 불편함이 굉장히 많은 건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진희 위원 :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예산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겠고요. 기계를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물론입니다. 2019년과 2020년을 넘어오면서 아르코예술극장, 아르코미술관은 건축가 김수근 선생의 작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진입통로 같은 것들을 규정에 맞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도 해야 하고 여기에 장애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사회적 배려와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늘 위원회가 4개의 안건과 10개의 보고안건을 접수하고 논의사항 2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를 하기 이전에 차기 회의일정을 정하겠습니다.

(회의 일정 조정)

7.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2시부터 시작한 회의가 몇 차례 정회가 있었지만 4시간을 채워서 이번에도 6시를 넘겼습니다. 매우 미숙한 진행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열띤 논의와 협조 덕분에 위원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 307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15분 회의 종료)